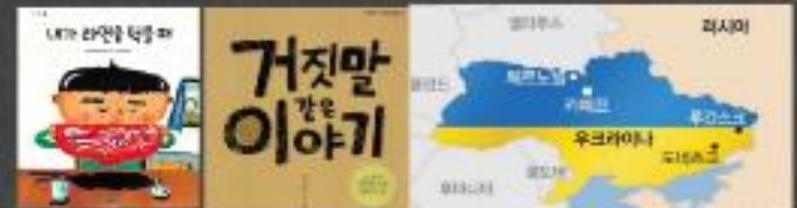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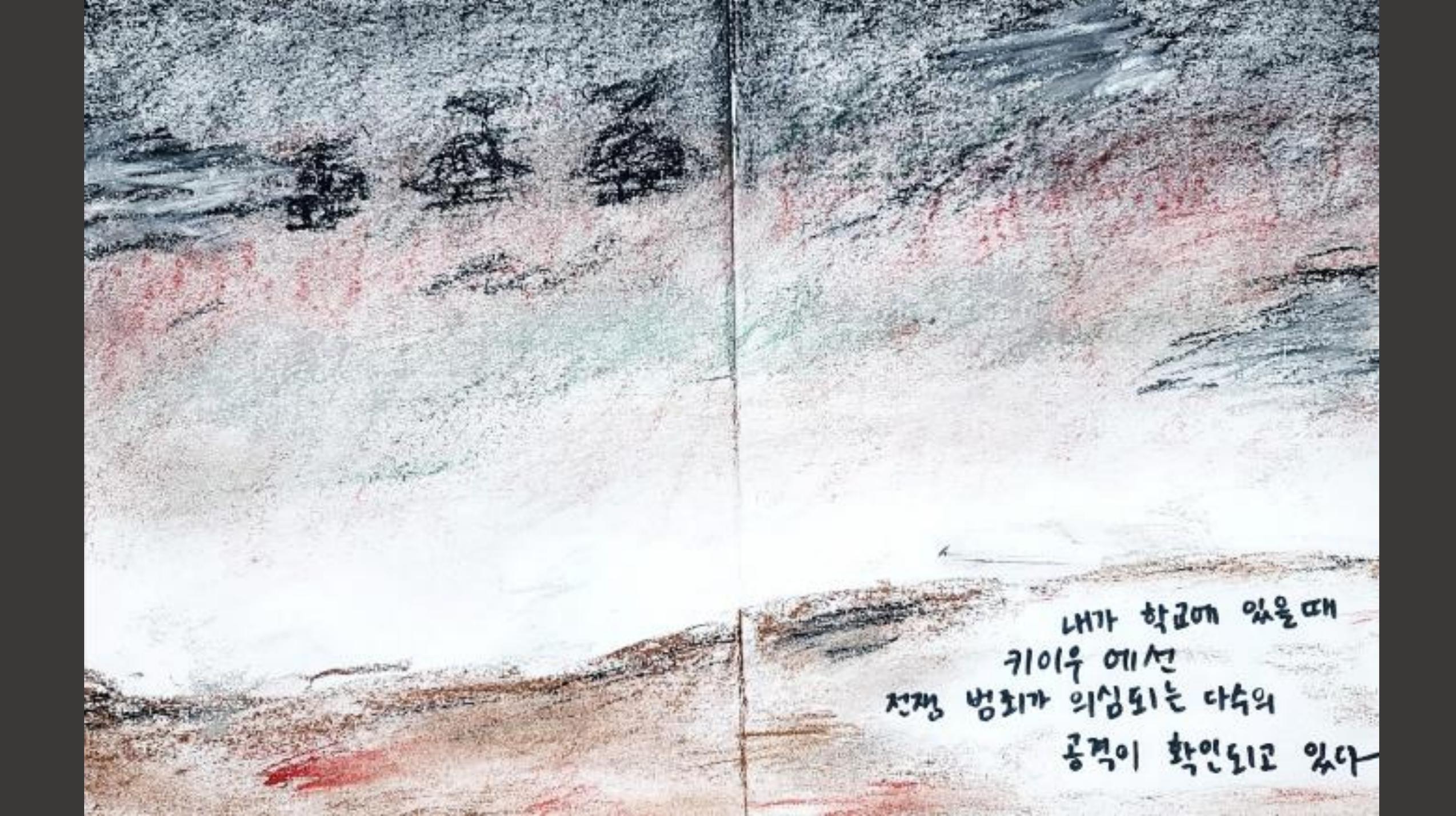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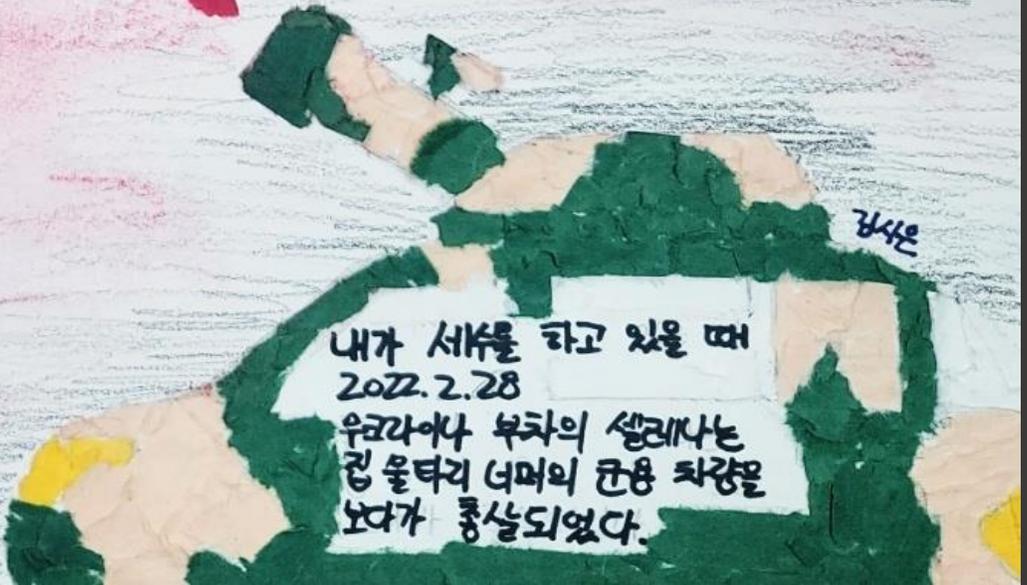
강물평화한 학급그림책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키이우에선
전쟁 범위가 의심되는 다수의
공격이 확인되고 있다



내가 세상을 하고 있을 때
2022.2.28
우크라이나 부차의 셸레나는
집을 타기 너머의 군용 차량을
보다가 총살되었다.

김서은

내가 집에 있을 때..

2022.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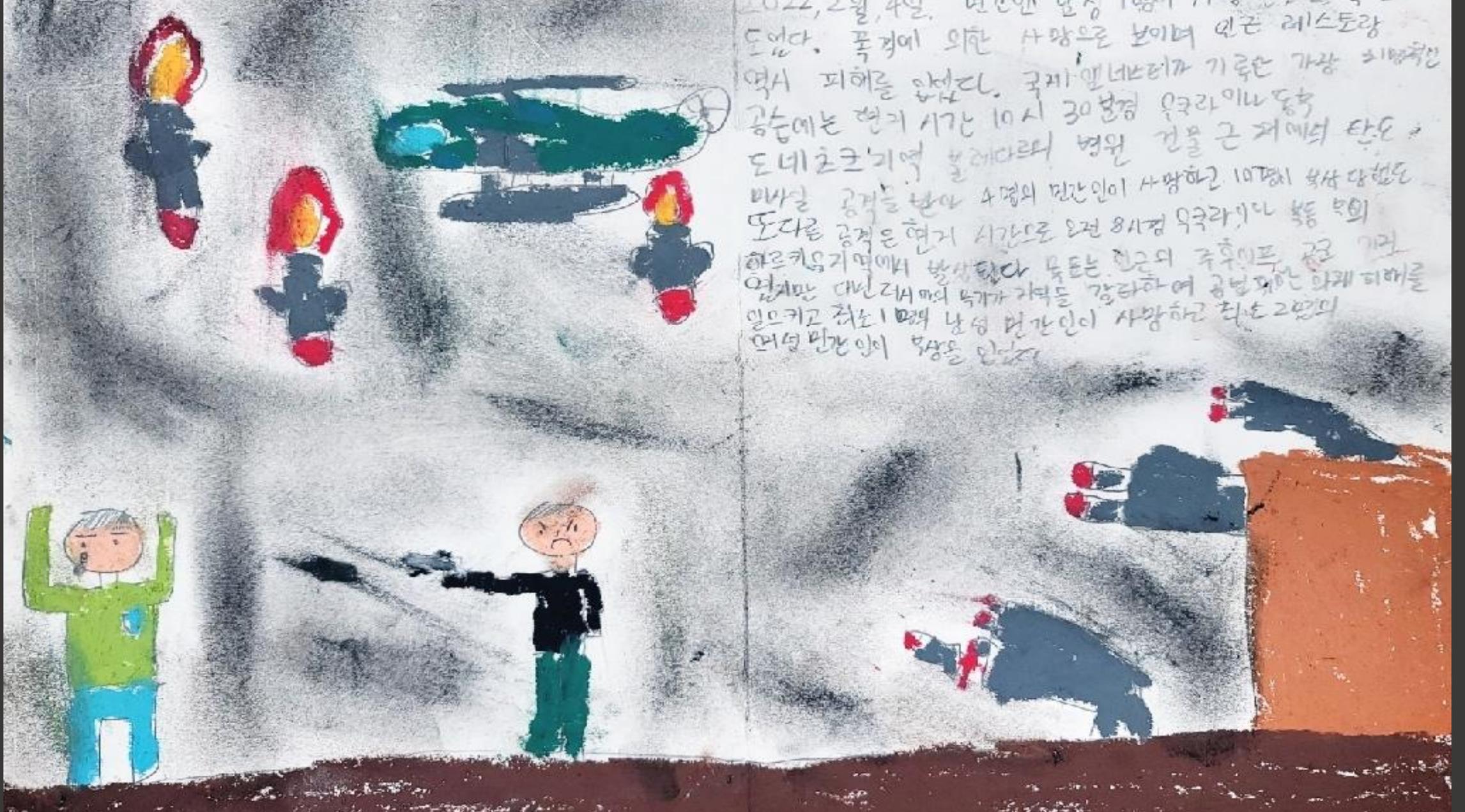
우크라이나 보르켈에

18살 가테라나 트라크바 부르는

집앞에서 총격을 당했다.



내가 밖에서 놀고 있을 때
 2022, 2월, 4일. 민간인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
 되었다. 폭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며 인근 레스토랑
 역시 피해를 입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가장 끔찍한
 공습에는 현지 시각 10시 30분경 인근 라이스 동부
 도네호크 지역 불라다라 병원 건물 근처에 타격 후
 미사일 공격을 받아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또 다른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경 무크라야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에서 발생했다. 폭탄은 인근의 주유소, 군 기차
 열차만 대신 라사마의 두가 가역들 강타하여 공습 피해는 의제 피해를
 일으키고 최소 1명의 남성 민간인이 사망하고 최소 2명의
 여성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2022. 2월 17일
스타니치아 루한 스킨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무장 단체가 스타니치
아의 한 유치원을 공격해 민간인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2022년 3월 12일 오후
유유기우, 살바티카 미너 물류 관리자
베로니카 셰레이치코 살티스쿠기
있는 자택 놓이터기 그라드 로켓
이 떨어지면 버 오른쪽 다리를 잃었어.

4월 26일 오전
같은 재빨리 짐승탄이 연속으로 떨어지며 3명
이 숨기고 (영이 회복상호 당함. 생중 자안 용에
나 소로키나는 이 폭발로 양 다리를 모두
잃었다. 현재 풀기나는 유전체 다른 지역이
있는 재탈 직도 시설로 이전되기를 바라며
누군가나 서투기 머물고 있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20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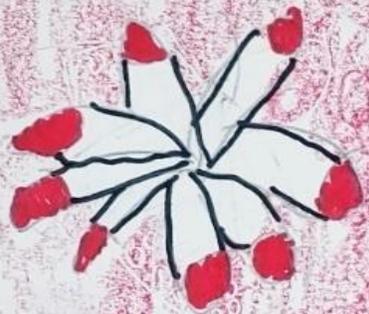
체르니히우의 광장에 음습으로 폭탄이 투하되어
만민 다수가 사망하고 많은 건물이 파손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위키증거연구소 정릉 경찰

최소 무류도 공중 폭탄 8 발이 투하되었으며
연료 보드시 다른 연
만민인 47명이 사망





내가 학원에 있을때
2022.3.3
우라이나 보르젤리
18살 카타리나 트자코바 부인은
집앞에서 총격을 당했다.
-한자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2022.3.24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파블로바 전철역
주차장에 인도주의 구호품을 받기 위해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던 현장에
집속탄이 떨어지며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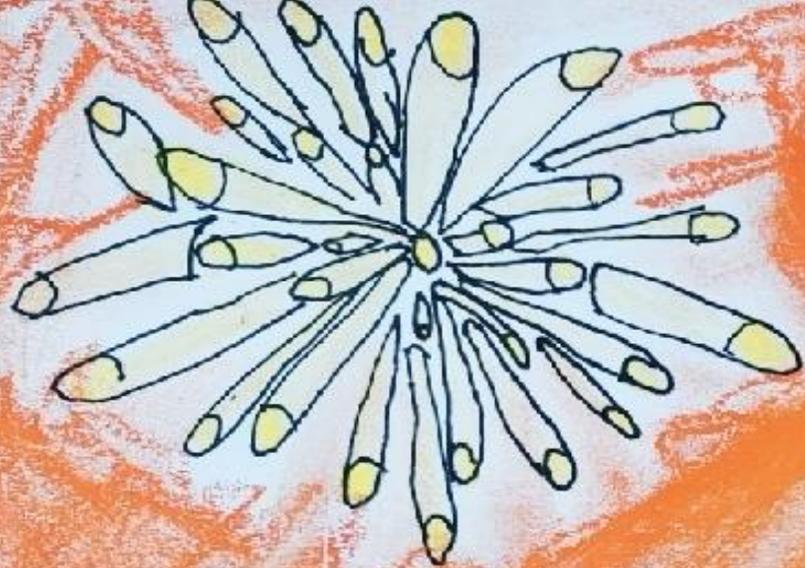


내가 노래를 들을 때.

2022.2.26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에서 포탄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체르니히우의 유치원 2층을 폭격했다 이로 인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내가 방학 숙제를 할 때.
2월 24일, 공기지 주변까지 어 / 침속탄이 떨어
어져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왔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2022. 4. 15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마이루 가

러시아 군은 마이루가 안팎으로 집중탄을 발사했다. 민간인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여러 명을 포함해 35명이 부상을 당했다. 근처에 있던 놀이터에서 옥사나 리트비덴코(41)는 남편 이반, 네 살 딸과 함께 건널 도중 집중탄 여러 개가 폭발하면서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 파편이 등과 가슴, 복부를 관통해 폐와 척추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옥사나는 지난 6월 11일 비극적으로 사망했다. 이 공격은 많은 가족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오후 시간이 벌어졌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2022. 3. 24

하르키우 아카데미카 전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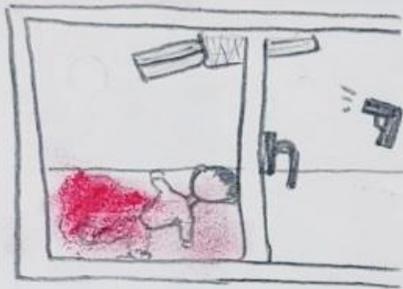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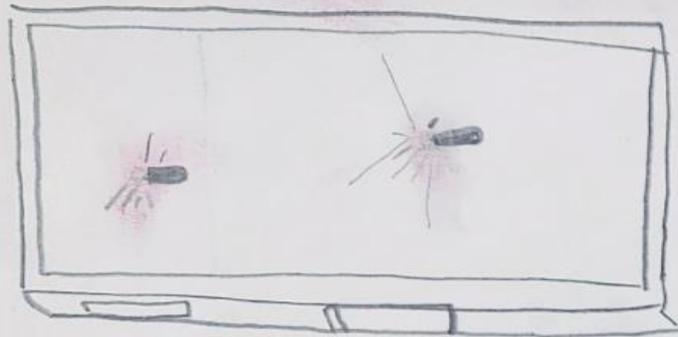
아카데미카 파블로바 전철역 주차장에서 인도의 구호품을 받기 위해
출을 서 있던 현장에 집속탄이 떨어지며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습 현장에서 가까운 펫샵에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발레리아 콜리슈키나는 폭발로 인해 주변 상점의
유리가 깨지면서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조사단은 집속탄 30개가 들어있는 220 mm
우르간 로켓의 파편과 일부가 여전히

아스팔트 구덩이에 박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 주변에서는

9N210/9N235 집속탄의 핀과 파편
그리고 여러개의 구덩이도 발견됐다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2022. 3월 9일 보호다니브카
무장하지 않은 남성 1명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러시아 병사들에게 머리에 총을 맞았다



〈NH가 학교에-11

어사를 [H]

2022년 5월 25일

오현티르카

오현티르카 유년에 집 숙련이 [떨어져]
피난 중이던 아동 1명 [O]은 포함하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유치원에
피난 중이었다



내가 게임하고 있을때

2022년 4월15일 오후

우쿠라이나 하르키우 마이류 가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41세
남편과 네 살인 딸과 임마가
집속탄에 마자 아바바 그케 부상을
입고 딸도 부상을 입었다 아내는
2022년 6월11일에 돌아갔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2022.3.3

우크라이나 쿨스토멜에 시장인 유리프빌립코
(Yuriy Prylypko)가 방금 ^{양호에}식량 ^{고가의}외국품을
전달하던 중 사살되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종전을 희망합니다.



사진출처 : <https://amnesty.or.kr/>